

사무엘상 20장 24-34절 말씀

①

- 24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5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26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녕히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②

- 27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29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30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별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32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